

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#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

## 📧 주요 내용

### 🎯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경제)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 결과 및 현지 시장 반응 ..... 2
-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, 기준금리 3.5%~3.75%로 동결, '26년 경제 성장률 2.4%, 인플레이션 2.7% 전망

### 🌐 경제통상 동향

- (규제) 美, 지속되는 중동 상황에 '존스법(Jones Act)' 60일 한시 면제 발표 ..... 4
- (경제) 美-日 공동 투자 프로젝트 관련 소프트뱅크 수수료 조정 논의 ..... 5
- (관세) PIIIE,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재부과 시도의 법적 한계 분석 ..... 6
- (미일관계) 미-일 정상, 백악관에서 무역·경제 협력 등 주요 현안 논의 ..... 7

### 🏛️ 의회법안 동향

- 인공지능, H1B 비자, 수출통제 등 상·하원 발의 총 3건 ..... 8

### 💬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..... 9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..... 10

## 📅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3.19(목)	• 3월 2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(Initial jobless claims)
3.20(금)	• 일정 없음(None scheduled)
3.23(월)	• 1월 건설 지출(Construction spending(delayed report))
3.24(화)	• 3월 S&P 서비스 PMI 속보치(S&P flash U.S. services PMI)

## (경제)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 결과 및 현지 반응

### 1. 회의 결과 및 경제 전망

#### □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, 기준금리 동결 및 경제 전망 발표(3.18)

- (금리) 기존 기준금리 3.5%~3.75%로 동결,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

\* 11대 1로 표결,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는 0.25%p 선제적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

-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 점도표(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도표)에 따르면 금리 인하는 '26년 0.25% 인하 1회, '27년 1회 추가 시사

-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 약화 속 금리 인하는 '확실한 물가 완화'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하며, 인플레이션 완화(2% 목표)가 금리 인하의 조건임을 강조

- (경제 전망) 견조한 성장 속 인플레이션 및 지정학 상방 리스크 모니터링 지속

- (GDP 성장률) 기존 2.3% → '26년 2.4\*%, '27년 2.3%, 장기 2.0% 성장 전망

\* 소비지출 호조 지속, 설비투자 회복으로 경기 침체(recession) 신호는 제한적

- (인플레이션) 기존 2.5% → '26년 2.7\*%, '27년 2.2%, 장기 2.0%\* 전망

\* 최근 유가 상승을 반영

- (실업률) 기존 4.4% → '26년 4.4% 유지, '27년 4.3%, 장기 4.2% 전망\*

\* 노동시장은 완만한 냉각이 지속되고 있으나 급격한 악화는 아님을 강조

〈FOMC 경제 전망 2026~2028 (중간값)〉

경제지표	2026	2027	2028	장기전망
실질 GDP 성장률	2.4%	2.3%	2.1%	2.0%
실업률	4.4%	4.3%	4.2%	4.2%
PCE 인플레이션	2.7%	2.2%	2.0%	2.0%
근원 PCE	2.7%	2.2%	2.0%	-
금리인하 (점도표)	3.4%(1회)	3.1%(1회)	3.1%(동결)	3;1%

[자료:FOMC 경제전망]

- 파월 연준 의장은 미 경제는 건조한 성장 속 인플레이션은 ‘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’이라고 평가하고, 추가 조정은 경제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
- 중동 상황의 경제적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언급하고, 경제 지표, 변화하는 경제 전망 및 위험의 균형을 계속해서 평가하겠다고 강조

## 2. 현지 반응

### □ 미 주식 시장 반응, 인플레이션 우려 등 경제적 불확실성 집중 보도

- (주식 시장) 금리 동결 발표 직후 ▲S&P500 -1.36%(6,624p, 연중 최저), ▲나스닥 -1.46%, ▲다우 -750p 급락, ▲美 달러인덱스 100선 돌파(3.5개월 최고)
- (현지 언론) 인플레이션 우려, 유가 상승 등으로 조기 금리 인하 분위기 후퇴
  - (CNN) 옥스포드 수석 연구원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심층 분석하고, 연준이 성장과 물가 어느 쪽도 동시에 대응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평가
  - (CNBC) 금리 동결 결정을 ‘매파적 동결’로 규정하고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금리 인하 기대치가 연내 1회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했다고 보도
  - (AP) ‘연준이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’이라고 분석
  - (블룸버그)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재개의 조건으로 언급한 ‘관세로 인한 상품 물가 상승에서의 인플레이션 완화’가 필요하다고 한 점을 재강조
  - (모건스탠리)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에 신중함을 유지한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
- ※ **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일, 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하며 압박**(트루스 소셜, 3.18)
  - ‘파월은 언제까지 금리 인하를 미룰 것인가’라고 게시("When is 'Too Late' Powell lowering INTEREST RATES?"), 금리 인하 압박

▪ 작성자 | 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
▪ 자료원 | FOMC (원문), CNBC (3.18), 월스트리트저널(3.18), CNN (3.18) 등 현지 언론 종합

## (규제) 美, 지속되는 중동 상황에 '존스법(Jones Act)' 60일 한시 면제 발표

- (개요) 美 정부, 에너지 공급 차질 대응을 위해 존스법 60일 한시 면제 조치 시행
  - 트럼프 행정부는 1920년 제정된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하고, 외국 선박의 미국 내 항만 간 연료 운송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
  - 동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 연료 운송 비용 및 병목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
- (상세) 외국 선박 활용 허용으로 연료 운송 유연성 확대...비용 절감 기대
  - 존스법은 미국 내 항만 간 화물 운송 시 미국산·미국적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로, 외국 선박의 연료·가스·비료 등 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
  - 특히 걸프 연안 정유시설에서 동부 지역으로의 연료 운송 비용 절감 및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됨.
- (반응) 단기 공급 완화 기대 속 효과 제한적 평가...미국 내 해운업계는 반발
  - 에너지 업계는 물류 제약 완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는 반면, 가격 인하 효과는 갤런당 수 센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며 전반적 유가 안정에는 제한적 영향
  - 일부 해운·노동 단체는 국내 해운산업 보호 약화 및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
  -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상징적 대응 성격이 강하며, 중동 상황 장기화 시 에너지 시장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폴리티코(3.12)(3.18)

---

## (경제) 美-日 공동 투자 프로젝트 관련 소프트뱅크 수수료 조정 논의

---

- (개요) 소프트뱅크, 오하이오 가스발전소 프로젝트 수수료 90% 이상 삭감
  - 현지 언론은 소프트뱅크의 오하이오 가스발전소 프로젝트 수수료가 당초 약 1조 엔 규모였으나 일본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90% 이상 삭감되었다고 보도
  - 동 수수료는 발전소가 목표 용량(9.2GW) 달성 시 15년~20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, 사업 재원은 일본 측이 전액 조달하는 구조
- (상세) 일본 측, 사업 구조·결정 권한·금융지원 조건 등 쟁점 부각
  - 동 산업은 미·일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공동 투자 산업으로, 일본이 자금을 전액 조달하고 미·일이 특수목적법인(SPV)을 통해 지분을 50:50으로 보유하는 구조로 추진
  - 합의 조건상 프로젝트 발표 후 45영업일 이내 일본 측이 자금 지원 의무를 지며, 최종 결정 권한은 미국 측이 보유해 일본 측 관여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평가 제기
  - 일본 측은 소프트뱅크의 관련 분야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발전소 운영의 공개 입찰 필요성을 제기했으며, 일본국제협력은행(JBIC)·일본수출입보험공사(NEXI) 등을 통한 금융지원에 대해 일본 상업 은행들의 부담도 거론
- (반응) 일본 정부 내 사업 추진 방식 및 지원 부담 관련 문제의식 확산
  -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자금을 부담하는 반면 산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관여 범위가 제한적인 구조에 대한 우려 제기
  - 손정의 회장의 대미 네트워크는 사업 추진에 기여한 요인으로 평가되나, 특정 인물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은 정책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

---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김기범
▪ 자료원	<a href="#">FT (3.18)</a>

---

## (관세) PIIE,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재부과 시도의 법적 한계 분석

---

- (개요) 피터슨 연구소(PIIE),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활용 관세 전략에 대해 의회 관세 권한 잠식 소지와 법원 제동 가능성 제기
  -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 기반 관세 무효화 이후,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(국제수지 관세)의 한시적 활용 및 301조를 통한 관세 재부과를 추진
  - 피터슨 연구소는 이러한 접근이 사실상 기존 IEEPA 기반의 광범위한 관세 장벽을 복원하는 효과를 낼 경우,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
- (상세) 301조 조사 확대에 따라 의회의 관세 권한 위임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
  - 301조는 해외의 불공정 관행·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·보복 수단으로 설계되어, 상대국의 관행 조사 → 시정 요구 → 필요시 보복 조치를 시행하는 구조
  - USTR은 과잉생산능력 조사가 미국 수입의 약 70%, 강제노동 조사가 약 90~95%를 포괄한다고 추정, 이는 사실상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\*
  - \* USTR은 구조적 과잉생산능력(약 16개의 경제권 대상)과 강제노동(60개 국가 대상)을 사유로 301조 조사 진행 개시
  - 조사 범위가 사실상 전면적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, 의회가 301조를 통해 대통령에게 포괄적 관세 권한을 위임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
  - 다만 피터슨 연구소는 301조가 관세 법률이고, 대통령과 USTR에 ‘불합리성’을 판단할 명시적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IEEPA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
  - 대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주요 쟁점 원칙\*과 위임금지 원칙\*\*을 중시한 만큼, 301조를 통한 사실상 전면 관세 재도입도 장기적으로 법원의 제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
  - \* 주요 쟁점 원칙: 경제·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의회의 명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원칙
  - \*\* 위임금지 원칙: 의회가 핵심 입법 권한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넘길 수 없다는 원칙

---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김예나
▪ 자료원	PIIE (3.17)

---

## (미일관계) 미일 정상, 백악관에서 무역·경제 협력 등 주요 현안 논의

---

- (개요) 미일 양국 정상,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개최(3.19)

-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고,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왔다고 언급
-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·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, 특히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

- (상세) 무역·중동상황·경제안보 협력 등 주요 현안 논의

- 다카이치는 글로벌 경제·안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만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미일 동맹에 대한 헌신에 감사 표명
- 다카이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왔고, 에너지·광물 등 핵심 분야 경제안보 협력에 초점을 둔 논의가 기대된다고 언급
- 트럼프는 주일미군 병력 규모와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언급하며, 나토와 달리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

- (반응) 현지 언론은 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표 가능성 보도

- 미일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투자의 일환으로 4백억 달러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투자 프로젝트\*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으며,

\* 테네시·앨러배마주 美 GE 버노바-日 히타치제작소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

- 굳건한 미일 동맹과 지원에 대해 찬사가 이어졌음에도, 중동 상황을 둘러싼 양국간 긴장이 목격됐다고 평가

---

▪ 작성자 | 워싱턴 D.C. 무역관 심재원

▪ 자료원 | 백악관(3.19), 블룸버그(3.19)

## 미국 의회법안 동향

구분 (현행일)	법안 (발의일)	대표 발의자	법안 및 주요 내용
인공지능 (3.17)	S.4113 (상) (3.17)	Elissa Slotkin (민)	<b>&lt;AI 가드레일 법안(AI Guardrails Act)&gt;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방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제한을 두는 법안으로,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간 승인 없이 자율무기가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,</li> <li>AI를 이용한 미국인에 대한 감시,</li> <li>AI를 활용한 핵무기 발사</li> </ol> </li> </ul>
H1B 비자 (3.17)	H.R.7961 (하) (3.17)	Michael Lawler (공)	<b>&lt;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법(Physicians and the Healthcare Workforce Act)&gt;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특정 비이민 근로자 입국 제한' 대통령 선언에 따른 제한에서 H-1B 보건의료 종사자를 면제하는 법안</li> </ul>
수출통제 (3.16)	H.R.7962 (하) (3.16)	Richard McCormick (공)	<b>&lt;수출통제개혁법(Export Control Reform Act)&gt;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18년 수출통제개혁법(ECRA) 제1763(c조, 50 U.S.C. 4822(c))의 부처 간 이견 조정 절차 심사를 개정해,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 관련 결정, 특히 전면적 미국 무기 금수 대상국 관련 사안에 적용 범위·절차를 명확화하려는 법안</li> </ul>

\* 미국 동부 시간 3월 19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##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a href="#">Trump's \$200 Billion War Request Faces Skepticism in Congress</a> (트럼프, 2,000억 달러 전쟁 예산 요청...의회 회의론 확산)
	미 국방부는 전투 작전 및 탄약 보충을 위해 2,000억 달러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도록 백악관에 건의하였으나 전쟁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며 여야 막론 반대 기류 보여
The Washington Post	<a href="#">Airlines are spiking. Here's how to navigate the hikes.</a> (치솟는 항공권 가격, 대응 전략은?)
	항공권 가격은 원래 변동성이 크지만,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이 최근 수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연료 비용 부담을 떠안아
The New York Times	<a href="#">Central Banks Brace for Faster Inflation as Energy Prices Surge</a> (세계 중앙은행,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인플레이션 가속 대비)
	유럽 중앙은행, 영국 중앙은행, 일본 은행은 연준에 이어 목요일 기준금리 동결,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차질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공통된 우려 속에 신중한 대응
CNN	<a href="#">Tracking current TSA wait times at select major airports</a> (미국 주요 공항 대기 시간 증가...정부 섯다운 여파)
	미 국토안보부 예산이 2월 중순 만료된 이후 의회 교착 상태가 지연되며 교통안전청(TSA) 직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공항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 지연
Reuters	<a href="#">US fixed 30-year mortgage rate hits three-month high amid Iran war</a> (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3달 만에 최고 수준)
	모기지 금융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 평균 금리는 6.22%로 집계돼 전주(6.11%) 대비 상승, 지난해 12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봄철 성수기 주택 거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

\* 미국 동부 시간 3월 19일 16시 기준

## 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6-08	<a href="#">미국 2025년 수출입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</a>	2026.3월
US26-07	<a href="#">2026 워싱턴 국제무역회의 주요내용 및 전망</a>	2026.3월
US26-06	<a href="#">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</a>	2026.2월
US26-05	<a href="#">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</a>	2026.2월
US26-04	<a href="#">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·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</a>	2026.2월
US26-03	<a href="#">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</a>	2026.1월
US26-02	<a href="#">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</a>	2026.1월
US26-01	<a href="#">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</a>	2026.1월
US25-51	<a href="#">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</a>	2025.12월
US25-50	<a href="#">美 2026 국방수권법(NDAA)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</a>	2025.12월
US25-49	<a href="#">미·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(USCC)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</a>	2025.12월
US25-48	<a href="#">워싱턴 국제무역협회 'Trade &amp; Tech Summit' 내용 및 시사점</a>	2025.12월
US25-47	<a href="#">세계무역기구(WTO)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</a>	2025.12월
US25-46	<a href="#">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</a>	2025.12월
US25-45	<a href="#">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함의</a>	2025.12월
US25-44	<a href="#">美-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</a>	2025.12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 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사-26 (2026.2.6.)		
코인사-25 (2026.1.24.)		

문의	이메일	전화
	jwshim@kotra.or.kr	+1) 202-857-7919
	shim.nature@kotra.or.kr	